

N개의 일을 상상하다

- 지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김수영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facesy115@makehope.org)

요약

- 올해 희망제작소는 장수, 전주, 진안 지역 청소년들과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협업을 배우고, 다양한 직업과 삶의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경험을 함.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지역 청소년들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청소년들은 '일'을 목표나 수단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치는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평생 직업, 평생직장 등의 개념이 사라지는 사회 현실과 맞닿아 있음. 동시에 자아실현과 생계 두 선택지 사이에서 일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혼동을 느끼고 있었음. 따라서 청소년 진로탐색은 스스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로서 <내몸드로잉> 워크숍을 진행함. 워크숍에서 '일'을 평소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의 몸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과정에서 '일'이 무엇인지, '일'에 필요한 가치와 능력은 무엇인지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짐
- 학습을 통해 도출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은 직접 또래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후 희망제작소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진로탐색활동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키워드 지역 청소년, 청소년 진로, 내일상상프로젝트, 일, 노동

1. 들어가며

‘일’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하는 필수적 행위이며, 현대사회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만큼 내가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는 진로탐색의 과정은 개인에게 중요하다. 진로교육법 제정, 자유학기제 시행 등 우리 사회는 청소년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향과 관점이 필요한가는 여전히 논제다. 많은 곳에서 진로교육을 진행하지만 ‘꿈’과 ‘끼’라는 모호한 개념만 강조할 뿐, 실제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비판들¹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강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과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올해 장수, 전주, 진안 지역 청소년들과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과 직업을 알아보고, 직접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발굴하여 또래들과 프로젝트로 실행하는 진로탐색활동이다. 청소년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협업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회 속의 ‘나’를 발견하고, 지역사회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본 이슈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장수, 전주, 진안의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지역 내에서 팀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 앞서 이들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고, 이후 진로탐색활동에 필요한 노동관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지역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일’

먼저 지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글의 주제인 ‘일’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은 대개 직업 또는 직장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은 경제활동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은 사전적으로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Work)은 직업(Job), 노동(Labor), 생산적 협업(Productive cooperation)², 행위(Action), 임금(Wage) 등 다양한 의미들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역 청소년 92명에게 내가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1) “[노동절 126년] 99% 노동·1% 끼가 만드는 세상”, 『경향신문』, 2016.04.28.

2) 케이시 워스는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에서 무엇이 일로 여겨지는가, 어떤 형태의 생산적 활동이 일에 포함되며 각각의 가치는 어떻게 인정받는가는 역사적 논쟁이라고 말하며, 일을 임금노동에 국한하기보다 생산적 협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돈을 버는 수단 빠져드는 것 **생활** 인생의 **알아가는** 부모
 생계유지 **시간** 비례하는 **적용하는** **알아가는** 놀이
 사회 우리 **많은** 적성 성장의 인생을 결과 하는 것 기운이 돌아보는
 체험 **돈벌기** 하고 싶은 것 배우는 행복과 얻는 **꿈을** 좋아하고
 시급 **살아가는** 불행의 **나를** 나의 남의 **행복**
것을 하고 있는 노동 원하는 **과정** 능력을 **나를** 모두가
 해야 하는 향한 용돈 살아가는 것 **행복이** **나를** 좋은 것
 자유롭고 **모르겠다** 하는 **진리** 모든 **활동** 존재하는
수단 여행 위한 시험해보는 **하고 싶은** 특기 잘하는 지름길 직업
 도구 **즐거움** 행동 이유 **아는** 넘치는 구분 **희망**
 믿음 **경험** 선택의 증명하는 **현실**
 사회에 **내가** 미래 필요 **아는** 주는 단순노동

[그림1]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일'

위의 그림은 지역 청소년들이 일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이미지화한 것이다. 성장, 노동, 행복, 능력, 경험 등 다양한 단어가 나왔으나 일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과정'으로, 참가자들이 일을 목적이거나 수단보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나'와 '돈'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나'를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나를 알아가는 과정, 내 능력을 키워가는 것 등의 내용들이 나왔다. '돈'을 기준으로 돈을 버는 것, 돈을 버는 수단, 시급 등의 내용들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지역 청소년들은 '일'을 자아실현과 생계수단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평생직장,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아실현'과 '생계'라는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일의 의미에 대해 혼동된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공되는 직업에 대한 정보나 강연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진로 탐색활동에는 청소년들 스스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일'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문에 참여한 92명 중 75명의 지역 청소년들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3. '일'과 '능력', 그리고 나의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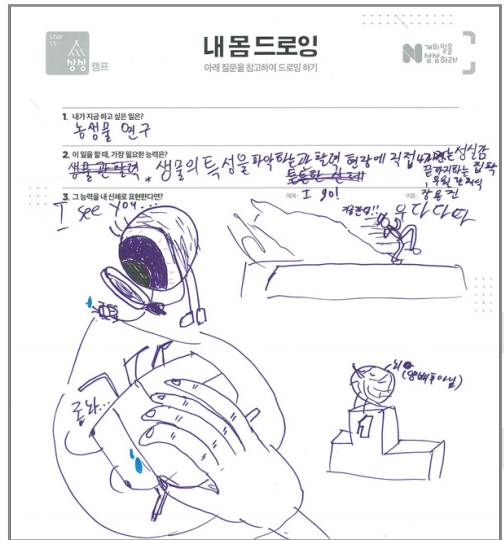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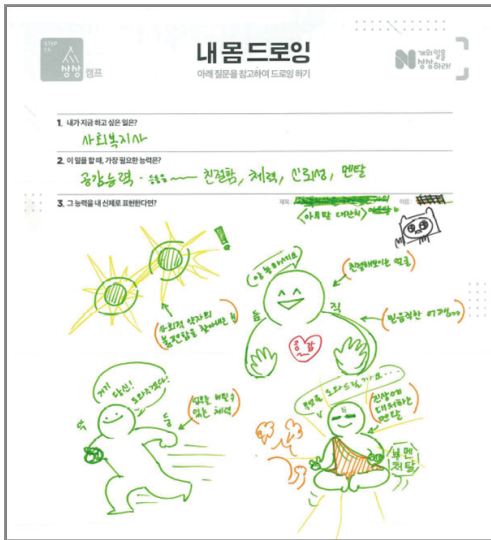
1) 기획배경

사회학자 엄기호는 저서 『공부공부-자기를 돌보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서 이렇게 말한다.

“숨의 길이를 안다.’ 라는 말은 비교와 극복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내가 ‘모르던 나’를 ‘알았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숨의 길이를 모르 채 물속에 뛰어들었다면, 내가 자신을 잘 몰라서 스스로를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숨의 길이를 알면 나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남과의 비교가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서, 자신에 관한 모름에서 앞으로 이동한 데 초점이 맞춰진다. 아는 것이 나를 살리고 돌보게 한다. 여기서는 알아 곧 실천이다.”³⁾

내가 몰랐던 ‘나’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주제에 대한 질문과 문제의식이 생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몸드로잉>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지역 청소년들은 워크숍에서 ‘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평소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의 ‘몸’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고,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 3가지 질문 순서대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 이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 그 능력을 내 신체로 표현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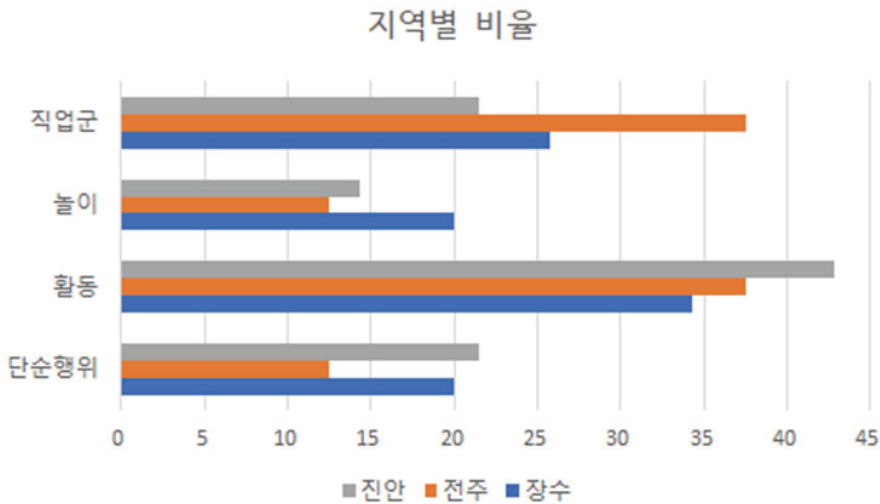
[그림] 워크숍 활동

아래에서는 워크숍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어떤 내용으로 답했는지 정리해보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엄기호 저, 『공부공부-자기를 돌보는 방법』, p139.

2) 하고 싶은 '일'

첫 번째 질문에 청소년들은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분석하면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먹기, 자기와 같이 특정한 목적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 행위'가 있다. 두 번째로 즐거움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서 콘서트, 공연, 드라마 감상 등의 '놀이 행위'가 있다. 세 번째로는 국가보안관, 헤어디자이너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농·생물 연구, 사회 경제 발전시키기, 세계여행 등과 같이 보다 뚜렷한 목적과 내용이 전제되는 '활동'이 있다. 아래 그림은 참가자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4가지 카테고리에 따라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일에 대한 인식 분류의 지역별 비교

참가자들은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을 '활동'이나 '직업군'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인다. 전주 지역은 다른 두 지역보다 하고 싶은 일을 직업군으로 표현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반대로 진안 지역은 하고 싶은 일을 활동으로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비중이 컸다. 장수 지역은 활동 다음으로 직업군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다른 두 지역에 비해 하고 싶은 일을 놀이로 표현하는 청소년들도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들의 인적 특성 또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자유학기제 중점추진 영역 응답 차이(교사) 단위: 명(%)

지역규모	자유학기제 중점 추진 영역(1순위)				합계	χ ²
	수업방법개선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 (교내)	진로활동 (교내)	지역체험활동		
대도시	52 (53.6)	20 (20.6)	7 (7.2)	18 (18.6)	97 (100)	18.262** (df=6)
중소도시	32 (74.4)	2 (4.7)	3 (7.0)	6 (14.0)	43 (100)	
읍면지역	22 (35.5)	16 (25.8)	10 (16.1)	14 (22.6)	62 (100)	
합계	106 (52.5)	38 (18.8)	20 (9.9)	38 (18.8)	202 (100)	

*p<.05 **p<.01 ***p<.001

[표 1] 지역규모에 따른 자유학기제 중점추진 영역(임지연, 2014)

[표 1]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자유학기제 중점추진 영역이 지역규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한 결과이다.⁴ 이에 따르면 지역규모에 따라 교사가 중점적으로 보는 청소년 진로영역이 다르다. 읍면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여 진행되는 체험활동이나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동아리 활동이 중점 추진 영역이라는 인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중소도시 학교의 교사는 동아리 활동이나 지역체험활동과 같은 활동보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비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장수와 진안 지역 청소년들이 전주 지역에 비해 일의 가치나 의미를 활동에서 찾거나 일을 놀이로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현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가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 터전임을 고려할 때 지역과 학교의 협력,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 지역이 청소년의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 등 청소년 주변의 사회적 인식과 환경에 따라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범위도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직업인 양성'이라는 가치관에서 '소질과 적성 개발'이라는 가치관으로 변화해왔다. 2015년 새롭게 제정된 진로교육법⁵은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일'을 자아실현으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워크숍에서 확인된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은 지역사회 규모, 사회경제환경과 인프라, 분위기 등에 따라 청소년들이 일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여러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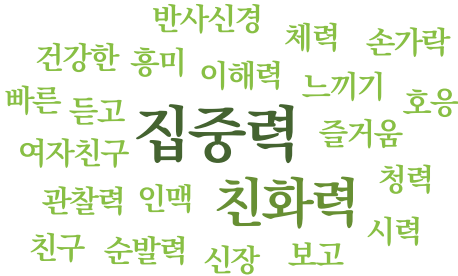
4) 임지연(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4-R04, p.101. 설문대상은 청소년지도사 및 학교 교사로 지역규모, 학교 및 시설규모 등에 따라 청소년기관 100여개, 학교 74여개, 17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함.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1333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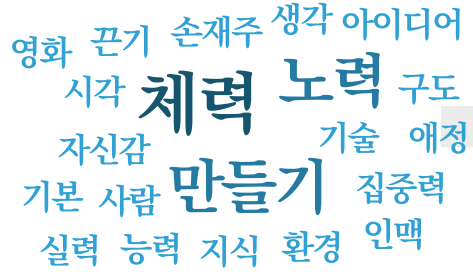
여주었다. 따라서 진로교육을 할 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진로교육의 목적과 일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을 견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점의 정립도 필요할 것이다.

3) 가장 필요한 '능력'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능력으로, 참가자들의 답변 내용을 위 4가지 카테고리(직업군, 놀이, 활동, 단순행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교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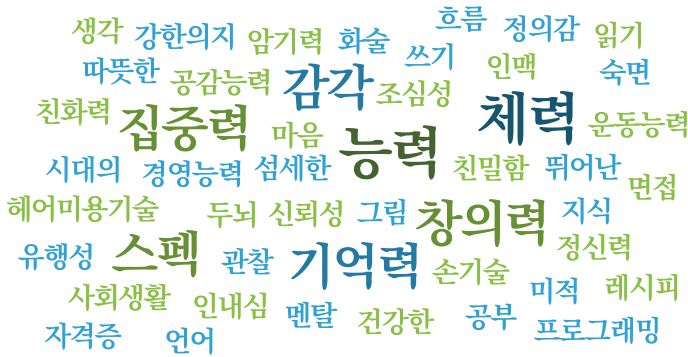


[그림 4] '놀이'에 따른 필요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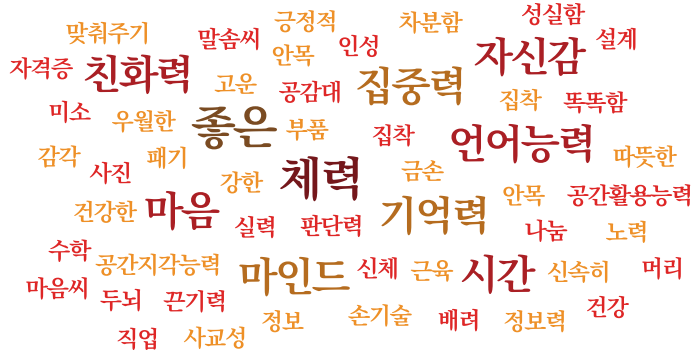
[그림 5] '단순행위'에 따른 필요능력

하고 싶은 일이 '놀이'나 '단순행위'에 속하는 참가자들은 필요 능력으로 꼽은 키워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다수는 집중력, 체력, 만들기, 노력, 친화력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차지했다. 나의 '꿈'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은 있었으나, '손가락', '신장(키)', '시각' 등 직접적인 신체 행위에 따른 연결들이 많았다.



[그림 6] '직업군'에 따른 필요능력

반대로 '직업군' 카테고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키워드가 나왔고 내용 역시 '프로그래밍', '미적 감각', '스펙', '헤어미용기술', '멘탈', '경쟁능력', '공감능력', '조심성' 등이 주를 이뤄 해당 직업군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그림 기] '활동'에 따른 필요능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활동'에 속하는 참가자들은 위의 세 카테고리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내용의 답변을 보여주었다. '좋은 눈', '똑똑한 생각', '튼튼한 다리' 등 보편적인 키워드를 답하기보다는 '사회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 '돌발 상황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 '생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관찰력', '현장에 직접 가는 성실함', '끝까지 하는 집착' 등 활동 목적에 필요한 능력과 특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즉 특정 직업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일의 목적과 내용이 뚜렷함에 따라 다양한 상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능력'이란 사전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능력에 따른 보상과 능력주의⁶를 말하지만 정작 그 능력은 자격증이나 스펙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안의 내용보다 타이틀이 더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청년들은 능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대외활동을 하고, 대학원을 가고 학위를 취득한다.⁷ 이처럼 공부, 동아리, 봉사활동, 자격증 등 누구보다 열심히 스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정작 진로를 준비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 자신을 모르는 것'을 꼽고 있었다.⁸ 많은 지식, 정보를 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한 정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나'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보도록 진행되었다. 참가자 간의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앞으로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과 관점을 갖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주었다.

6)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는 능력주의(meritocracy)를 사람들의 성공이 외부적·환경적 요인보다는 각자의 행동에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더 높은 경제성장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자는 이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세상 일기」 능력주의, 해악인가 해법인가, 「한겨레」, 2016.07.25.
7) 「청년이 미래다」 자의반 타의반 '스펙경쟁'...청년은 불안하다, 「세계일보」, 2016.06.01.
8) 조현진(2016), <청소년들의 일과 삶-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희망제작소, 희망리포트 2017-01, p.51.

4) 우리에게 필요한 N개의 물음

워크숍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활동하면서 느꼈던 질문과 생각들을 적어보았다. 저마다 다양하게 작성한 고민과 질문들은 크게 3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었다.

꿈에 대한 확신과 불확실성

- 꿈에 대한 확신이 없다
- 가능성 없는 꿈도 괜찮을까?
- 하고 싶은 꿈 VS 이익이 있는 꿈
- 성적도 개판이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인생 망한 건가요?
- 자기 꿈은 돈 벌기를 위한 꿈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꿈일까요?
- 꿈은 하나만 가져야 하나요?
- 꿈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의 '일'을 찾아가는 과정

-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잘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는 방법은?
- 좋아하는 일과 능력은 달라도 상관없을까?
-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고민이고 나를 잘 모르겠다.
- 잘하는 걸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걸 해야 할까요?
- 재미있는 일을 찾으려면?
- 돈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된다.

일의 의미와 가치

-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무의미해질까 두려워요.
- 일을 했을 때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 누구랑 일할까?
- 돈 버는 일 안 하고, 서로 놀고 돌아다니는 세상이 되고 그렇게도 돌아가는 세상이 될 수는 없나요?
- 돈을 많이 벌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죠?
- 일이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 직업의 귀천이 있는가?
- 일이란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 단정 지을 수 없을지 모른다.
- 일을 일어나거나 걷는 것 또한 '일'일수도 있다.
- 일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걸까요?

[표 2] 워크숍에 참여한 지역 청소년들의 질문과 관점

4. 나가며

앞서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장수, 전주, 진안 지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고,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1) 청소년들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역사회의 인식,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 2) 하고 싶은 일과 필요한 능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내몸드로잉>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 환경 등에 따라 청소년들마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팀 프로젝트를 경험하더라도 지역의 특성과 관점에 따라 청소년이 얻게 되는 경험과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사회는 어떤 노동관점을 정립하고 진로교육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 첫 번째 시사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향후 지역사회에서 가져야 할 노동관점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이 일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질문을 도출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질문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 공유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경험을 통한 배움과 알고 있던 것들이 확대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질문을 얻는다. 청소년들이 던진 질문은 이번 워크숍이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진행된 워크숍이 '나'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진행하게 될 팀 프로젝트는 또래와 일하는 나의 모습, 협업의 의미와 가치 등을 익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협업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워크숍을 통해 고찰했던 일의 의미와 가치들이 어떻게 팀 프로젝트로 연결되고 확장되는지 관찰할 것이다.

'창조는 얇은 문제에서 두꺼운 문제로 넘어갈 때,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룰 수 있을 때, 나온다.'⁹⁾는 말이 있다. 앞으로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질문과 고민을 끌어안은 채, 또 하나의 경험을 습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구와 일하는가,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일하는가, 이 일을 내가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마주할 수도 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의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던지는 질문과 관점들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9) 엄기호 저, 『공부공부-자기를 돌보는 방법』, p250. 문구 인용.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 조현진, 2017, 『청소년들의 일과 삶-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희망제작소 희망리포트 2017-01
임지연, 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4-R04

단행본

- 케이시 워스 저, 2016,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제현주 옮김, 동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기획, 2015, 『십 대 밀바닥 노동』, 교육공동체 벗
엄기호 저, 『공부공부-자기를 돌보는 방법』, 2017, 따비
강수돌 저, 『노동을 보는 눈』, 2012, 개마고원

기사

- "[청년이 미래다] 자의반 타의반, 스펙경쟁'...청년은 불안하다", 『세계일보』, 2016.06.01.
" [세상 읽기] 능력주의, 해약인가 해법인가", 『한겨레』, 2016.07.25.
"지방 청년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꿈꾼다는 것", 『시사인』, 2017.07.04.
" [노동절 126년] 99% 노동·1% 끼'가 만드는 세상", 『경향신문』, 2016.04.28.

'2017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 '2017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희망제작소·전주 YMCA·진안 교육협동조합·장수 YMCA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Asia NGO innovation summit
희망제작소를 영싸이클링하라
The Young Foundation 2차원의 제발견

ANIS 은것문제출사
정신을
시대를
정신을
물린다

social innovation
리얼타임지성포럼
아시아 사회혁신
어워드

호혜와연대
HAPPY SENIOR AWARDS
아름다운 시니어
사회적기업

어린이 함께
두번째 인생실거
social innovation

good fund raiser
좋은 일애
공정한 노동
유애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사회적
매니페스트 기업가 이상해요.

후러라이브러리
문화예술교육 희망탐사대
김지희게이 착한ICT 강산대
희망저리 생애살계
민들기 프로젝트

NGO
노란테이블
좋은 서울만들기 대학생·영웅디자인협회

사회적기업활인포럼 도시재생
귀농 귀촌 아카데미
마을이 학교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함일포럼

0416
HOPE
찾아갔습니다

시민희망지수
사회적경제
리포트
렛츠콜
우키토크

@서울
공유
경제
기법

사회적기업
공유
경제
기법

Think & Do Tank *
행복한 삶
아파트 이웃
공동체
만들기

도시농업 NGO 해외시니어
누가 좋은 어워드
국회의원이가 경향파로
착한ICT

전개의 직업
수원평생학습관
거버넌스
목민관
학교
시민참여형
매니페스트
희망마을
포럼

지공
혁신
주민자치
100 참여
구상 예산
사회 학교
리얼·리얼
집단지성
프로젝트



▶ 후원회원 신청

02-2031-2130
give@makehope.org

▶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는

-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입니다.
-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 www.makehope.org
- facebook.com/hopeinstitute
- 02-3210-0909